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F. Liszt의

「Après une lecture du Dante」

분석 및 고찰



제주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이 성 아

2009년 8월

F. Liszt의

「Après une lecture du Dante」

분석 및 고찰

지도교수 박 순 방

이 성 아

이 논문을 음악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 년 8 월

이 성 아의 음악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9년 8월

F. Liszt의 「Après une lecture du Dante」 분석연구

리스트는 화려한 기교와 대담한 화성, 새로운 형식의 창조와 자유로움을 추구했던 역사상 위대한 피아니스트 중 한명이자 뛰어난 작곡가였다. 또한 그는 관현악적 구성을 피아노로 재창조 하였고, 소리 그 자체를 위한 음악인 인상주의를 예견하였으며 표제 음악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리스트의 음악적 특징을 이해하고 좀 더 깊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 리스트의 많은 피아노 작품 중 필자의 대학원 졸업 연주회에서 연주되었던 「단테를 읽고」를 택하여 분석 연구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학교 도서관과 온라인 도서관 등을 통하여 문헌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단테를 읽고」의 배경을 살펴보면 곡의 제목은 빅토르 위고의 시집 「내부의 소리」에 실린 32편의 시 중 27번째 시 「단테를 읽고(Après une lecture du Dante)」의 제목에서 가져 온 것이다. 빅토르 위고의 시는 단테의 「신곡」의 지옥 부분만을 묘사하고 있지만 이 작품에서는 지옥부분 뿐 아니라 베아트리체와의 사랑과 천국부분도 묘사하고 있으므로 단테의 「신곡」 전체를 묘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작품에 나타난 리스트 음악의 특징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먼저 표제적 요소는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삼전음(Tritone) 중 증 4도와 감 5도를 통하여 지옥의 분위기를 둘째, 반음계와 트레몰로를 통하여 지옥의 공포와 더불어 천국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셋째, 관현악적 효과의 음량을 통해서 극단적인 지옥의 고통이나 화려하고 웅장한 천국의 승리 등을 나타낸 것이다. 형식을 살펴보면 소나타 형식 안에 리스트의 환상을 즉흥적이고 자유롭게 펼친 환타지적 요소가 들어있고, 거대한 단락장의 구성과 주제의 변형을 통한 반복 사용 등을 한 소나타 형식과 환타지적 요소가 결합된 형식이라 볼 수 있다. 연주 기법적인 측면에서는 작품 안에 나타난 폭넓은 다이내믹과 연속적인 이중 옥타브 스케일, 8도나 10도의 연속적인 스케일, 과감한 도약진행을 능숙하게 연주하기 위해 팔과 손목의 릴렉스와 회전 테크닉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악곡의 구조는 도입부-제시부-발전부-재현부-코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3개의 주제가 나타난다. 도입부의 증 4도 주제, 반음계 진행을 하는 제시부의 제 1주제, 서정적인 제 2주제가 그것인데, 이 3개의 주제들은 작품 안에서 변형되어 전체에 나타나고 있다.

목 차

국문초록	i
목차	ii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	1
II. 작품분석	3
1. 작곡배경	3
1) 탄생배경	3
2) 문학적 배경	4
2. 작품에 나타난 리스트 음악의 특징	8
1) 표제음악	8
2) 형식	11
3. 악곡 구조	13
1) 구조분석	13
2) 연주기법	34
III. 결론	42
참고문헌	44
Abstract	46

악 보 목 차

<악보1>삼전음 (1-5마디, 7-10마디)	10
<악보2>반음계(35-37마디)	10
<악보3>트레몰로(290-293마디)	10
<악보4>이중 옥타브(300-307마디)	11
<악보5>도입부의 주제(1-6마디)	15
<악보6>도입부의 주제변형(7-10마디)	15
<악보7>도입부의 주제변형(11-15마디)	16
<악보8>제1주제의 암시(29-34마디)	16
<악보9>제1주제(35-40마디)	17
<악보10>제2주제(103-114마디)	18
<악보11>도입부의 주제변형(115-123마디)	20
<악보12>제1주제의 변형(124-132마디)	21
<악보13>제2주제의 변형(136-141마디)	21
<악보14>제1주제의 변형(157-160마디)	22
<악보15>카덴자와 같은 부분(176-178마디)	23
<악보16>음의 길이와 음정이 변한 증4도 주제(182-188마디)	23
<악보17>189-194마디 상행하는 선율과 182-188마디의 모티브 이용 (189-194마디)	24
<악보18>왼손 주제 진행(199-203마디)	25
<악보19>악보34의 모티브를 이용한 리듬형(209-212)	25
<악보20>동형진행과 7음의 해결(225-227마디)	24
<악보21>증4도 주제의 변화와 오른손의 옥타브 스케일(232-238마디)	26
<악보22>제2주제 음형의 트레몰로, 아르페지오 음형, 장3도 아래서 재현.(249-265마디)	27
<악보23> 제1주제의 변형(273-278)	28
<악보24>도입부의 주제 변형(283-289마디)	28

<악보25> 제2주제의 변형(290-299)	29
<악보26> 이중옥타브와 D장조로의 연결구(300-304마디)	30
<악보27> 도입부의 주제 변형(318-324마디)	31
<악보28> 제1주제 변형(327-338마디)	32
<악보29> 셋잇단음표로 변형된 제1주제(339-342마디)	33
<악보30> 장3화음의 도약 진행(361-365마디)	33
<악보31> 완전5도를 통한 도입부의 증4도 주제 해결(366-373마디)	34
<악보32> 도입부의 주제(1-6마디)	35
<악보33> 제1주제(마디 35-40)	36
<악보34> (77-80마디)	36
<악보35> (90-92마디)	37
<악보36> (157-158마디)	37
<악보37> (189-192마디)	38
<악보38> (235-238마디)	38
<악보39> (300-303마디)	39
<악보40> Coda(324-326마디)	39
<악보41> Coda(339-342마디)	40
<악보42> Coda(360-365마디)	40
<악보43> (366-373마디)	41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 연구의 목적

프란츠 리스트는 헝가리 태생으로 19세기 낭만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이자,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다. 그는 700여곡이 넘는 음악을 작곡했는데, 피아노곡과 교향시, 관현악곡 등이 있으며, 특히 피아노를 통하여 오케스트라의 음향을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들 대부분 표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좀더 자유로운 형식을 사용하였으며, 인상주의를 예견하는 화성의 사용으로 19세기 말 및 20세기 작곡가들에게 강한 영향을 주었다.

리스트의 피아노 음악 중에서 표제음악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순례 연보>는 스위스와 이탈리아 등지를 여행하면서 그곳의 풍경과 문학작품이나 조각, 그림과 같은 예술작품에서 영감을 얻었다. 총 3권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단테를 읽고」는 제 2권 이탈리아편의 마지막 곡으로 곡의 제목은 빅토르 위고의 시에서 가져온 것으로서, 단테의 <신곡>을 바탕으로 하여 쓰여졌다.

본 논문에서는 「단테를 읽고」를 분석 연구함으로써 이 작품에 나타난 구조와 특징 등을 이해하여 보다 깊은 연주를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2) 연구의 방법

먼저 리스트가 이 작품을 작곡하게 된 배경과 작품의 특징 등을 알고, 악곡 구조의 분석을 하기 위해 문헌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종 참고문헌과 선행논문을 통하여 문헌연구를 하였는데 참고문헌은 학교 도서관을 통하여, 선행논문들은 ‘한국 교육 학술 정보원(KERIS)’을 통하여 각 학교의 온라인 도서관, 국립전자

도서관에서 찾은 자료들이다.

내용으로는 먼저 리스트가 「단테를 읽고」를 작곡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고, 이 작품에 나타난 리스트 음악의 특징과 악곡 구조의 분석, 연주기법을 연구하였다.



II. 작품분석

1.작곡 배경

1)탄생배경

리스트의 피아노 음악 중에서 표제음악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순례 연보1>는 1835년에서 1877년 사이에 걸쳐 스위스와 이탈리아 등지를 여행하면서 그곳의 풍경과 문학작품이나 조각, 그림과 같은 예술작품에서 영감을 근거로 작곡한 피아노곡이다. 총 3권 26곡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단테를 읽고」는 제 2권 이탈리아편의 마지막 7번곡이다.

이 「단테를 읽고」는 완성되기까지 40년 정도가 걸렸는데 1837년 초고가 쓰여졌고, 1838년과 1839년 사이에 초판이 나왔으며, 1839년에 리스트에 의해 초연되었다. 그 후 1849년에 개정 작업 후 1858년에 스코트(schott)²⁾사에 의해 출판되었다.

40년간의 작업 중에 제목도 여러 번 바뀌었는데, 초고가 쓰일 당시에는 <신곡에 바탕을 둔 구약성서, 교향적 환상곡(Paralipomenes a la Divina Commedia, Fantasie Symphonique)>라는 곡명을 붙였고, 그의 친구 라프(Joachim Raff, 1822-1882)³⁾에게 보낸 편지에 쓰여진 제목은 <단테의 신곡을 바탕으로 한 소나타풍의 환상곡(Fantasie quasi sonata, Progomenes zu Dantes Gottlicher Comodie)>이었다.⁴⁾

1853년 출판된 악보에는 <Après une du Hugo>라 썼지만, 이후에는 <Après une lecture du Dante>와 함께 <Fantasie quasi sonata>라는 부제를 가진다.

1) 제1권: 스위스편 9곡

제2권: 이탈리아편 7곡, 보유편3곡

제3권: 7곡

2) schott: 1780년경 베른하르트 쇼트가 마인츠에서 설립한 독일의 음악출판사

3) 젊은 스위스의 작곡가로 바이마르의 리스트 서클의 일원이었다.

4) 오은실, “리스트의 「순례의 연보 제 1,2년」과 「2개의 전설」에 나타난 타예술의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9), p.32.

2)문학적 배경

(1)빅토르 위고(Victor Hugo, 1802-1885)의 「내부의 소리(Lex voix interieures)」

「단테를 읽고」란 곡의 제목은 서론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1837년 6월 27일 파리에서 Reduel에 의해 출간된 빅토르 위고(Victor Hugo, 1802-1885)의 시집 「내부의 소리(Lex voix interieures)」에 실린 32편의 시 중 27번째 시 「단테를 읽고(Après une lecture du Dante)」의 제목에서 가져온 것이다. 「단테를 읽고」는 단테의 「신곡」 중 지옥부분을 묘사한 시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번역> 단테를 읽고

시인이 지옥을 묘사할 때, 그는 그의 삶을 그린다.
그의 생은, 뒤쫓아 온 망령으로부터 달아나는 환영.
불안한 그의 발자국이 트인 길을 벗어나서
무작정 헤매는 신비스런 숲.
뒤틀린 만남으로 가로막힌 불길한 여행.
불안정한 항해. 엄청난 깊이의 소용돌이.
그 무시무시한 순환은, 막연하지만 생생한 지옥이
사라져갔던 음영에서 항상 더 앞서 나아가도다!
이 비탈길은 뿌연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
발걸음마다 탄식이 지루하고,
희미한 잠음으로, 음울한 밤에
하얀 이를 가는 소리가 스쳐 지나간다.
거기에 환영, 꿈, 망상이 있다.
불운이, 슬프고도 항상 미묘한
회오리바람으로 옆구리의 상처를 극복하는,

그는 한 쌍인 사랑을 쓰라린 근원으로 변화시키는 시선.

한편에는 침식된 지성에 나란히 웅크린

부도덕한 자매인 복수와 굶주림

게다가 메마른 미소를 띤 창백한 빈곤,

스스로 자라난 야망, 교만,

그리고 불결한 음란과, 혐오스러운 탐욕,

영혼을 짊어질 수 있는 무거운 망토!

더 나아가 비열, 공포, 배반

팔 열쇠를 제공하고 독을 음미한다.

그리고 훨씬 아래에 심연 깊은 곳에는

고통 받는 엔느(Haine)의 찌푸린 가면

그렇다. 그것이 바로 삶이다. 영감을 받은 시인이여.

혼잡한 장애의 막연한 여정

그러나 편협한 이 길에서 좌절하지 않으려고,

당신은 항상 깨어져 당신의 오른쪽에

고요한 이마와 빛으로 가득 찬 눈을 가진 천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평온한 비르질(Virgile)은 말한다. 계속합시다!

이 시는 「내부의 소리」에 수록된 다른 시들 보다 찬사를 받지 못하였으나 리스트는 이 시에 크게 감명 받았음에 틀림없다.

(2) 단테(Dante Alighieri1285-1321)의 신곡(La Divina Comedia)

단테(Dante Alighieri1285-1321)는 이미 오래 전부터 리스트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많은 독서를 했고, 1830년경 파리에서 생활 할 때도 프랑스 낭만파를 이끄는 많은 문인 교류를 통해 영향을 받았다. 단테에 대한 리스트의 관심을 리스트의 글 모음집 2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하루의 뜨거운 열이 최고로 올라 있을 때 우리(리스트와 마리다구 백작부인)는 종종 Villa Mclzi의 나무 그늘 아래에 자리를 잡고는 Comolli의 조각 ‘베아트리체에 이끌려 가는 단테’를 보며 「신곡(La Divina Comedia)」을 읽곤 했다.”⁵⁾ 이렇듯 단테의 대한 관심

은 「단테를 읽고」를 탄생시킨 배경이 되었다.

신곡은 종교적 서사시로 전 100장 1423행으로 단테가 35세인 1300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1주일동안 지옥, 연옥, 천국으로 순례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⁶⁾

①지옥편

모두 9개로 구성되어진 지옥은 어둠과 증오와 영원한 저주의 세계이다. 여기 있는 영혼 들은 죽을 때까지 악과 이웃하고 있다.⁷⁾ 어두운 숲을 지나 아케론 강을 건너 영원한 벌이 있는 건너편 언덕에 이른다.

i. 제1지옥: 림보라고 하며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살았던 덕망 있는 자들과 세례를 받지 못한 채 죽은 어린이들이 죄인으로써 벌은 없다. 호메로스, 헥토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헤라클레스 등이 이 지옥에 있었다.

ii. 제2지옥: 이곳부터가 진짜 지옥이라 할 수 있는데 애욕의 죄를 지은 자들이 벌을 받고 있다.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된 미녀 헬레나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등이 등장하며 반인반수(半人半獸)인 ‘미노스’가 공정한 심사를 한다.

iii. 제3지옥: 미식가와 폭식가의 지옥으로 실컷 먹어도 양이 차지 않는 체르베로스 라는 삼두견이 살을 찢고 있다.

iv. 제4지옥: 재산을 모은 자와 낭비자가 모여 있는 지옥으로 가슴에 무거운 짐을 서로 쳐다보며 욕지거리를 퍼붓는다.

v. 제5지옥: 분노한 자들이 벌을 받는 지옥이다.

vi. 제6지옥: 이곳부터는 하부지옥으로 진리를 모르는 자로써 불에 그을린 관 속에 묻혀 있다.

vii. 제7지옥: 이웃과 이웃의 소유물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죄인들로써 플레게톤 강의 끓는 피에 잠겨 있다.

viii. 제8지옥: 자신을 신뢰 하지 않는 자들을 숙인 아첨꾼들, 요술쟁이, 점쟁이, 자신의 이익이나 남의 이익을 위해 여성을 유혹하는 자들인 탐관오리, 사기꾼들을 벌하는 곳으로 10개의 골짜기에 나누어 벌 받고 있다.

5) Walter Robert, "Après une lecture du Dante of Liszt", 「Piano Quarterly」 vol 89(1975), p.23.

6) 한현근, 「풀어쓴 단테의 신곡」,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2003), p.25.

7) 상계서, p.29

ix. 제9지옥: 반역의 죄, 폭정의 죄를 지은 자들로 예수를 배반한 유다, 아우를 살해한 카인 등이 얼음에 휩싸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②연옥편

연옥은 정죄와 희망의 왕국으로 영적 구원을 받을 만한 영혼들이 천국으로 가기 전에 수양을 하는 곳이다. 천사들이 칼로 단테의 이마에 P자를 새겨주는데 이는 연옥에서 참회해야 할 죄(Peccata)- 오만, 시기, 분노, 태만, 인과 낭비, 탐식, 애욕 등 7가지 죄로 이러한 죄들은 벼랑을 차례로 지나면서 하나씩 씻어진다. 하지만 연옥에서의 정죄가 지옥에서 벌 받고 있는 것들과 비슷함을 보고 당혹감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러나 지옥은 죽기 전에 죄를 뉘우치지 못한 자들의 것이므로 영원한 형벌이고, 연옥은 죽기 전에 회개한 자들으로써 구원 받은 영혼들이 천국에 올라가기에 앞서 연옥에서 정죄하는 것이다. 이 지상 낙원은 지상에서의 완전한 행복을 의미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며 교회와 군주국의의 보편적인 권력들을 조화시킬 줄 안다면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엠피레오(정화천)에 올라가기 전에 그들은 지상의 죄를 망각케 하는 레테 강에 몸을 씻고 선행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 에우노에 강물을 맛보는 정화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테는 이 두 강에 몸을 적신다.

이윽고 수레를 탄 베아트리체가 모습을 드러내고, 천국여행에 대비하여 자신과 그리핀의 눈에 비친 태양빛을 단테의 눈에 반사시켜 눈을 단련시켜 준다. 마지막에 이르러 베르길리우스와 스타티우스에게 작별을 고하고 베아트리체의 안내를 받아 천국에 오르게 된다.

③천국편

천국은 빛과 춤과 노래, 그리고 완전한 환희와 덕이 있는 왕국이다. 영혼들의 본거지는 정화천이지만 단테가 도착하자 그에게 축복의 여러 계층을 알려주기 위해 각각 그들에게 적합한 지역으로 내려가 그를 맞는다.⁸⁾

천국은 10개의 층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8천에서는 영혼의 구원에 가장 중요한 신학상의 질문을 받는다. 성 베드로가 신앙에 대해, 성 야곱이 희망에 대해,

8) 최현 역, 「신곡神曲」, 변우사(1998) p.196.

성 요한이 사랑에 대해 각각 질문을 하는데, 단테는 훌륭히 합격하여 제9천으로 승천한다. 여기서 베아트리체는 ‘관조’의 상징인 성 베르나르에게 안내역을 넘겨 준다. 새로운 안내역 성 베르나르는 성모 마리아에게 단테의 염원을 무언중에 전달하고 성모마리아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리게 되어,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시성의 눈앞에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셋이면서 하나인 바퀴가 빛을 낸다. 그 바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 배례하며 범열에 취한다. 성직자의 기도하는 동작은 마치 대성당의 집사를 집례하는 성직자들의 조용한 동작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하여 단테의 소망은 이루어지고 신곡의 여행은 막을 내린다.

2. 작품에 나타난 리스트 음악의 특징

1) 표제음악

(1) 리스트의 표제음악

19세기 낭만음악은 인간의 개성존중과 자유주의의 이상에 그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작곡가들은 자신의 의지를 그대로 표출하고, 그들이 이해한 대로 사물 및 사건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이 결과 표제음악의 급속한 발달을 가져왔다.

리스트는 ‘표제음악’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소개하며 많은 표제음악을 작곡했다. 9) 그의 표제음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작곡가는 베를리오즈와 바그너를 들 수 있다. 리스트는 1830년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을 듣고 나서 표제음악에 눈을 뜨고, 가장 성격적인 것을 묘사하기 위해 교향시라는 악곡을 작곡하였다. 교향시는 표제음악의 하나로써 문학적 또는 시적 내용을 교향관현악에 의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19세기의 낭만주의 음악은 대체적으로 문학과 음악의 결합시키려는 성향을 가지며 이 속에는 가곡, 가극, 표제음악 등이 포함된다. 가곡과 가극이 직접 말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라면 표제음악은 간접적으로 말과 결

9) 사물이나 감정, 사건따위를 서사적으로 묘사하는 장르인 교향시를 설명하기 위해 리스트가 표제음악과 절제음악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함. 「음악용어사전」, “家室”, 일신서적출판사(2002), p.521.

부되는 것으로 교향시는 이런 형태로 문학 또는 다른 예술과 음악을 결합한 대표적 것이다. 그러나 그의 교향시는 슈만이나 베를리오즈 등의 다른 낭만주의 작곡가들의 교향시와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베를리오즈가 표제음악을 고정악상에 두고 문학적으로 구성한 것에 반하여 리스트는 음악 외적인 내용을 묘사함에 있어 시의 영역에서 영감을 이끌어내어 그만의 음악을 추구하였다. 10)

그의 곡 중 연습곡이나 모음곡 등의 피아노 음악들에도 풍경(Paysage), 도깨비불(Feux follets), 사냥(Wilde Jage), 탄식(Un sospiro)등과 같은 표제적 제목을 볼 수 있다.

(2) 이 작품에 나타난 표제적 요소

이 작품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소나타 풍의 환상곡(Fantasia quasi sonata)이다. 즉, 형식이 자유로운 소나타, 혹은 특별한 성격의 소나타로서 Beethoven Piano Sonata op.21 「월광」을 시초로 소나타 형식을 벗어난 환상적 표현 및 자유로운 형식의 환상곡이다.

이러림 리스트는 이 작품을 표제음악에 맞게 작곡하기 위하여 음악적인 틀도 그에 맞는 소나타 같은 환상곡으로서 작곡하였고, 세부적으로도 표제음악에 맞는 요소들을 사용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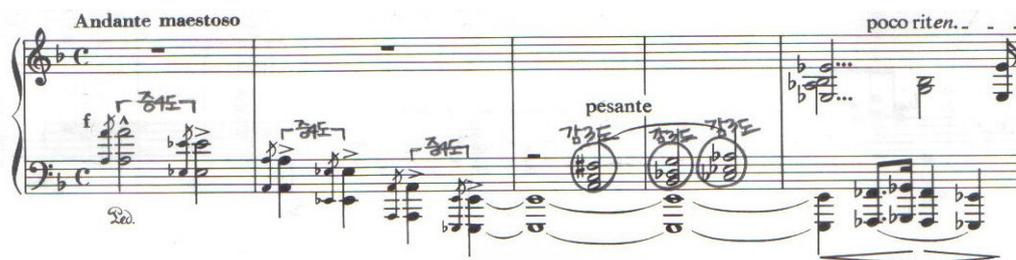
① 삼전음(Tritone)

‘삼전음’이란 3개의 온음을 포함하는 음정으로 증4도와 감5도가 여기에 포함되며, 또한 이 음정은 한 옥타브를 12개의 반음으로 나누었을 때의 절반에 해당하므로 반 옥타브(Half Octave)라고도 불리며 이 작품에서 중요시 되고 있다. 하지만 삼전음은 선율적 진행에 있어서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음악의 악마(Diabolus di Musica), 또는 미 콘트라 파(Mi contra Fa) 라는 명칭으로 그레고리오 성가나 초기의 다성 음악에서는 금지되어 왔지만 이 작품에서는 지옥이라는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이 음정과 화음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악보1 참조)

10) Hunphrey Searle, 김경임 역, 「리스트의 음악세계」, 계명대학교 출판부(1992), p.7.

<악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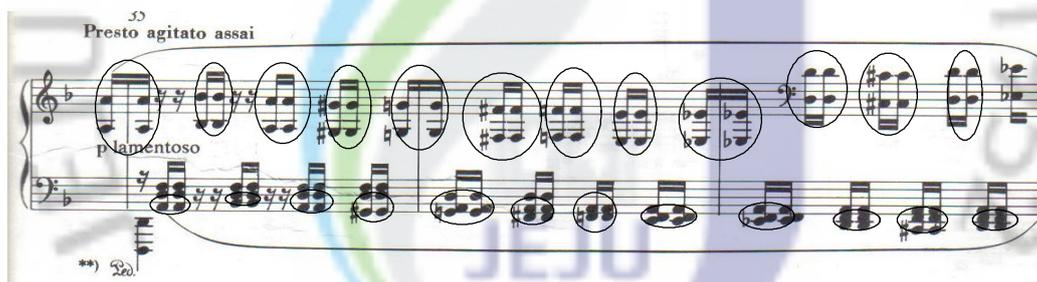


② 반음계와 트레몰로

리스트는 누구보다도 피아노의 기교를 많이 발전시킨 음악가로 반음계와 트레몰로는 때로 표제적 요소의 표출을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 작품에서 반음계와 트레몰로는 각각 지옥의 공포와 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표제적 성격을 갖는 기법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악보2, 3 참조)

<악보2>반음계(35-37마디)



<악보3>트레몰로(290-293마디)



③ 관현악적 효과의 음량

그는 피아노의 전진반이 관현악을 함축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피아노를 다루었기 때문에, 피아노 제작자들은 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아노의 크기, 페달 등의 발전을 가져오기에 이르렀다. 이 작품에서 관현악적 효과의 음향을 내기 위해서 그는 옥타브 악구, 이중 옥타브, 그리고 극단적인 강, 약 변화의 사용 등으로 웅장함과 정열적인 면을 보여주고 풍부한 색채감을 나타내고 있다. 주로 이러한 음향은 극단적인 지옥의 공포와 고통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 있다.¹¹⁾ 또한 천국의 승리도 상징하고 있다. (악보4참조)

<악보4>이중 옥타브(300-307마디)

2) 형식

① 소나타 형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낭만주의 음악은 작곡가들의 개성이 중요시 되면서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도 고전주의 음악에 비해 자유로워진다. 소나타 형식에서도 좀 더 자유로워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소나타 형식과 환타지의 결합은 낭만주의 음악 소나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작곡가의 개성과 자유로운 표현을 위하여 고전음악의 전형적인 소나타 형식에서 조금은 벗어나있다. 악

11) 서현진, 「단테소나타」의 분석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 p.19.

장의 구분이 거의 없는 거대한 단약장의 구성, 주제의 변형을 통한 반복 사용 등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타지(Wandeter Fantasie, Op.15)」, 슈만의 「판타지(Fantasie, Op.17)」, 리스트의 「B단조 피아노 소나타(Piano sonata in B minor)」 등이 있다. 「단테를 읽고」 역시 단약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입부의 주제, 제1주제, 제2주제가 계속해서 변형되어 나오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또한 「단테를 읽고」에는 ‘Fantasie quasi sonata’라는 부제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해석하면 ‘소나타풍의 환타지’라는 뜻이다. 즉, 이 작품은 소나타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환타지적 요소를 또한 결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테를 읽고」를 형식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때 기본 틀은 소나타 형식인 도입부-제시부-발전부-재현부-코다로 하지만 그 안에는 환타지적 요소와 함께 주제가 계속적으로 변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② 환타지적 요소

환타지((Fantasie)는 ‘환상곡’이라는 뜻으로 형식이나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작곡가의 환상을 자유롭게 펼쳐나가는 형태의 곡을 말한다.

낭만 음악 시대는 환타지의 절정기였는데 이 시기의 환타지는 개성적이고 자유로운 스타일로서 음악적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성격을 가지며 중요한 음악 양식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특징들은 작곡가의 독특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작곡되어진 캐릭터피스(Character piece)나 고전음악의 전형적인 소나타형식에 낭만적인 자유로움을 더한 환타지 소나타는 이 시대의 중요한 음악 형식이 되었다. 「단테를 읽고」 역시 ‘Fantasie quasi sonata’라는 부제를 붙여서 지옥과 연옥, 베아트리체와의 사랑과 천국 등을 표현하고 있다. ¹²⁾

12) 최정민, 「리스트의 ‘단테를 읽고’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9), p.42.

3. 악곡구조

1) 구조분석

앞서 「단테를 읽고」의 특징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이 곡은 환상곡적 성격과 소나타 형식의 구성이 결합되어 작곡되었다.

자유로운 환상곡의 시각에서 보면 「단테를 읽고」는 곡 전체가 여섯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형식에 매임 없이 대조적 선율 아이디어들이 주제 변형기법의 형태를 통해 유기적으로 나타나며, 다양한 조성·음형·다이내믹으로 처리되어 템포와 주제가 변형되면서 진행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형적인 소나타의 형식에 맞지는 않으나 도입부-제시부-발전부-재현부-코다의 틀을 갖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¹³⁾

본 논문에서는 소나타 형식의 틀 안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전형적인 소나타 형식이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로 구성되었다면, 이 곡에서는 전형적인 소나타 형식에 도입부와 코다를 덧붙였는데, 도입부와 코다는 곡의 앞과 뒤에 총 90마디로 곡의 1/4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조성관계를 살펴보면 제시부의 두 주제는 d단조와 F#장조로 장3도 관계에 있고, 발전부에서는 C#장조가 잠깐 등장하나 전반적으로 F#장조로 나타나고, 재현부에서도 A장조가 등장하지만 전체적으로는 D장조로 제1주제와 같은 으뜸음조 관계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곡의 조성관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장3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입부에서는 느린 템포의 삼전음 진행의 도입부 주제가 나오고, 제시부에서는 반음계 진행을 하는 어둡고 불길한 느낌의 제1주제와 밝고 힘찬 느낌의 제2주제가 등장하며 발전부에서는 도입부의 증4도 음형과 제시부의 제1주제와 제2주제가 음정, 리듬, 음역 등의 변화를 통해 발전된다. 재현부에서도 증4도 음형과 제1주제, 제2주제가 주제변형기법을 통해 등장하고, 코다는 주로 제1주제 모티브로 구성되었으며, 증4도 음형이 협화음정인 완전 5도로 변형되어 긴장감이 해소되면서 끝이 난다.

13) 김경임, 「피아노 소나타」, 경북대학교출판부(1995), p.98.

다음의 표는 앞의 설명과 덧붙인 이 곡의 전체적인 구성이다.

(표1) 「단테를 읽고」의 구성

	마디	빠르기 및 주제의 악상	조성	주제	특징
도입부	1-34	Andante Maestoso (f)	모호	도입부 주제 (증4도 주제)	
제시부	35-102	Presto (p)	d단조	제1주제	반음계진행 (Octave passage)
	103-114	(fff)	F#장조	제2주제	Octave passage
발전부	115-123	Tempo I, Andante (ff)	모호	증4도 주제의 변형	서정적 선율의 진행
	124-135	Andante (quasi improvisato)	C#장조	제1주제의 변형	
	136-156	Andante (pp)	F#장조	제2주제의 변형	
	157-180	più tosto ritenuto e rubato quasi improvisato (ppp)	F#장조	제1주제의 변형	
	181-272	Allegro moderato (pp)	모호	증4도 주제에 의한 발전, 제2주제의 변형	
재현부	273-289	Tempo rubato e molto ritenuto (p)	A장조	제1주제의 변형	트레몰로와 Octave passage의 scale
	290-317	Andante (pp)	D장조	제2주제의 변형	
코다	318-326	(fff)	모호	증4도 주제의 변형	반음계 진행과 연타
	327-338	Allegro vivace (ff)	D장조	제1주제의 변형	
	339-365	presto (p)	D장조	제1주제의 변형	
	366-374	Andante, Tempo I (ff)	D장조	증4도 주제의 해결	

① 도입부(1-34마디)

1-6마디에서 도입부 주제는 증4도 음정의 왼손 옥타브로 셈여림은 f로 나오고 있다. (악보5) 증4도 음정은, 앞서 이 음악의 표제적 요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세시대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음정으로써 지옥의 침울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불협화음정은 6마디의 A b 장조로 해결된다.

<악보5>도입부의 주제(1-6마디) a: 도입부 주제

또 이 주제는 7-12마디에서 단3도 상행하여 이명동음인 감5도로 다시 나온다. (악보6)

<악보6>도입부의 주제변형(7-10마디) a: 변형된 도입부 주제

13마디부터는 Andante Maestoso에서 Più moto로 빠르기가 변하면서 긴박감을 더하고, 도입부 주제(악보5, 1-6마디)의 첫 부분만 반복하면서 ff로 전개되어 진행된다. (악보7)

<악보7>도입부의 주제변형(11-15마디) a: 도입부 주제의 반복

30마디부터는 양손에서 번갈아 16분음표의 반복적인 리듬이 나오고 제1주제를 암시하듯 왼손의 반음계 진행이 나타난다. (악보8)

<악보8>제1주제의 암시(29-34마디) a: 왼손의 반음계 진행

②제시부(35-114마디)

제1주제는 30마디에서 암시되었던 것처럼 16분음표의 반복적인 리듬이 양손에서 나오고, 오른손의 옥타브 반음계 진행으로 주제가 제시된다. 왼손에서도 Pedal tone "D"를 제외한 Bass Line의 움직임이 반음계 진행으로 나오는데, 오른손 주제(B♭에서 하행하여 C♯에 이르고, 다시 상행하여 C까지 이르는 동안)를 따라 계속 반음계 진행한다. 도입부에서 모호했던 조성은 d단조로 명확해진다. '가까운 음표들의 혼합음은 모방되어야 한다¹⁴⁾'는 리스트의 지시에 따라 39마디까지 5개 마디들 전체에 걸쳐서 페달을 지속시키며 지옥의 음산함과 고통의 소리를 표현하고 있다. (악보9)

<악보9>제1주제(35-40마디) a: 오른손의 주제 b: Pedal tone "D"

제2주제는 103마디부터 등장하는데 9마디에 걸쳐 110 마디까지 나타나며, 운음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그 사이에는 이중 옥타브의 하행 진행이 나타나면서

14) Verlag Paul H. Bern, 「Erinnerungen an Franz Liszt」, p.49; E.M.B편(1929), 「리스트 피아노곡집/순례연보II」, 음악춘추사(2001), p.33에서 재인용

웅장함을 더해준다. *fff*의 음량과 양손의 이중 옥타브, 넓은 음역의 사용 등 이러한 기법은 리스트가 자주 사용하던 것으로 관현악적인 음향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했다. (악보10)

<악보10> 제2주제(103-114마디) a: 제2주제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five systems of staves. The first system (measures 102-104) features a treble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and a bass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two sharps (D#). It includes dynamic markings *fff*, *precipitato*, and *sf*. The second system (measures 105-107) continues in the same key signature. The third system (measures 108-110) shows a key signature change to two flats (Bb). The fourth system (measures 111-113) returns to the one sharp key signature. The fifth system (measures 114-119) includes the marking *rit.* and *Tempo I (Andante)*, with dynamics *ff* and *sf*. The score is annotated with circled chord diagrams and vertical lines indicating specific harmonic or structural points.

제1주제(악보9, 35-40마디)와 제2주제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먼저 조성은 각각 d단조와 F#장조로 장3도 관계에 있다. 이는 전형적인 소나타 형식에서 두 주제의 관계가 완전5도 관계¹⁵⁾로 나오던 것과는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리스트가 많이 사용했다. 또 제1주제가 16음표의 반복적인 리듬 진행을 p로 나타내어 지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반면, 제2주제는 온음표를 중심으로 *fff*의 음량과 양손의 이중 옥타브, 넓은 음역의 사용 등 여러 가지 기법으로 천국을 나타낸 것이 대조적이다.

③발전부(115-272마디)

115마디부터 123마디까지는 도입부의 주제(악보5, 1-6마디)가 완전 5도 하행하여 재현된다. 도입부와 다른 점은 왼손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코드(악보5, 1-2마디)가 도입부에서는 증4도였지만 발전부에서는 감5도로(악보11, 115-120마디) 음정변화가 있다는 점이다. 또 b부분(악보11, 122마디)을 살펴보면 도입부에서는 2분음표로 나오던 것이 4분음표와 8분음표로 음의 길이가 축소되었다. (악보11)

15) 제1주제는 으뜸조, 제2주제는 딸림조로 나온다.

<악보11> 도입부의 주제변형(115-123마디)

a: 감5도 b: 음의 길이 축소

124-135마디는 제시부에서 지옥의 분위기를 조성했던 제1주제(악보9, 35-40마디)가 이 부분에서는 셋잇단음표의 반음계로 진행하고, 조성도 C#장조로 변형되어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느낌을 주고 있다. 지시어 *dolcissimo con intimo sentimento*¹⁶⁾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또 *quasi improvisato*¹⁷⁾를 통해 즉흥적인 성격을 알 수 있고, 오른손의 반음계와 페르마타 등을 통해 환상곡적 요소를 알 수 있다. (악보12)

16) *dolcissimo con intimo sentimento*: 친밀하고 정감있게.

17) *quasi improvisato*: 즉흥적으로.

<악보12> 제1주제의 변형(124-132마디) a: 셋잇단음표로 변형된 제2주제

Andante (quasi improvvisato)

124 8

dolcissimo con intimo sentimento simile

C#:

127 8

ppp

136마디부터는 온음표 코드를 바탕으로 진행하던 제2주제(악보10, 103-114마디)의 변형으로 선율이 2분음표로 음의 길이가 축소되었다. 또 제시부의 제2주제가 이중 옥타브의 *fff* 음량으로 강렬한 인상을 준 반면, 변형된 제2주제는 오른손 내성의 8분음표 진행과 왼손의 아르페지오로 서정적인 멜로디를 자아낸다. (악보 13)

<악보13> 제2주제의 변형(136-141마디) a: 왼손의 아르페지오 ○: 제2주제 축소

Andante ben marcato il canto sempre legato

136

F#:

139

tre corde

157-181마디는 지시어 *dolcissimo con amore*¹⁸⁾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단테와 베아트리체 사랑을 표현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16분음표의 옥타브 반음계로 진행했던 제1주제의 제1주제(악보9, 35-40마디)가 변형되어 8분음표의 스타카토로 음형이 확대되면서 반음계로 진행 한다. 오른손의 내성은 A#-B음으로 왼손의 내성은 F#-E음으로 가는 변화음들이 나타나면서 *ppp*로 시작하여 173마디부터 점차 *cresc.* 되어 178마디의 *ff*까지 이른다. (악보14)

<악보14> 제1주제의 변형 (157-160마디) a: 8분음표로 확대된 제1주제

b: A#-B음으로 가는 변화음 c: F#-E음으로 가는 변화음

178마디는 카덴자와 같은 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appassionato assai*¹⁹⁾라는 지시어가 알려주듯이 매우 격정적이며 도입부의 증4도 주제로 변하기 직전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악보15)

18) *dolcissimo con amore*: 부드럽게 사랑을 가지고.

19) *appassionato assai*: 매우 열정적으로.

<악보15> 카덴자와 같은 부분(176-178마디)

44

con 8 ad lib.

ff appassionato assai

앞의 *ff*의 격정적인 선율이 진행하다가 180마디에서 급격하게 *diminuendo*되어 갑자기 *pp*로 분위기가 전환된다. 이 부분에서는 도입부의 증4도 주제(악보5, 1-6마디)가 다시 한 번 변형되어 나타나는데 점점 4분음표와 16분음표로 길이가 축소되어진 오른손의 음형은 발전부 후반에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 또한 증4도로 나타나던 선율의 음정이 화성적 음정으로 나타나고, *f*에서 *pp*로 다이내믹도 크게 달라진다. (악보16)

<악보16> 음의 길이와 음정이 변한 증4도 주제(182-188마디)

179

Allegro moderato

pp sotto voce

184

sempre p

189-198마디는 왼손의 멜로디를 두어 *pizzicato*와 같은 느낌으로 상행하고, 오른손은 트레몰로 효과를 주는 반주형이 나타난다. 194마디부터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82-188마디의 음형을 모티브로 삼아 16분음표와 점8분음표의 리듬형이 상
 행하여 나타난다. 이는 182-188마디의 하행하는 음형을 역행하여 나타낸 것이다.
 (악보17)

<악보17> 189-194마디 상행하는 선율과 182-188마디의 모티브 이용

(189-194마디) a: 트레몰로 반주형 b: pizzicato느낌의 상행선율

c: 182-188마디의 모티브를 이용한 리듬형

199마디에서부터 제1주제(악보9, 35-40마디)와 비슷한 양손의 16분음표 음형이
 등장하지만 제시부의 제1주제가 오른손 반음계로 진행된 반면, 여기서는 왼손에
 서 반음계 옥타브의 진행이 오른손에서는 도약하는 코드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악보18)

<악보18> 왼손 주제 진행(199-203마디)

199
p
agitato
poco a poco
cresc.

202

209마디의 이중 옥타브를 지나 211마디부터는 도입부 주제(악보5, 1-6마디)를 변형시킨 <악보11>의 모티브를 이용한 리듬형이 등장한다. (악보19)

<악보19> 악보34의 모티브를 이용한 리듬형(209-212)

208 8
stringendo
ff
Piu mosso
ff
Ab:

동형진행으로 나타나는 225-227마디는 *fff*로 시작되어 D장조와 C장조, 그리고 B \flat 장조의 순서대로 조성이 보인다. 또 각 마디의 왼손 첫 음은 그 마디 화음의 7음으로 이것은 마디의 마지막음인 근음으로 해결된다. (악보20)

<악보20> 동형진행과 7음의 해결(225-227마디) a: 7음의 해결

D: I 7 C: I 7 B: I 7

233마디에서는 증4도의 도입부 주제(악보5, 1-6마디)가 양손에서 모두 나타나고 235마디부터는 오른손 이중 옥타브 스케일이 *fff*로 강렬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이중 옥타브의 사용은 리스트 음악의 특징 중 하나인 관현악적 음향을 나타내고 있다. (악보21)

<악보21> 증4도 주제의 변화와 오른손의 옥타브 스케일(232-238마디)

a: 증4도 도입부 주제 b: 이중 옥타브 스케일

a b

fff con strepito

강렬했던 오른손의 이중 옥타브 스케일이 246마디부터 점차 가라앉는다. 250마디부터 나오는 왼손의 온음표 진행은 D#-E-D#-C#-C#의 코드 진행으로 제2주제(악보10, 103-114마디)의 음형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또한 256마디에서는 제2주제가 장3도 아래서 동형진행 되고 255마디까지의 오른손 트레몰로 음형은 256마디에서 아르페지오 음형으로 변한다. (악보22)

<악보22> 제2주제 음형의 트레몰로, 아르페지오 음형, 장3도 아래서 재현.(249-265마디)

The image displays a musical score for measures 248 through 265. The score is written for piano, with a bass clef on the left and a treble clef on the right. The key signature is one sharp (F#), and the time signature is 4/4. The score is divided into five systems, each containing two staves. Measure numbers 248, 251, 254, 258, and 262 are indicated at the beginning of their respective systems.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chords, arpeggios, and tremolos. Annotations include 'senza rallentare' (without slowing down) at measure 251, 'p' (piano) at measure 251, 'più dim.' (more decrescendo) at measure 258, and 'pp' (pianissimo) at measure 262. A large watermark for 'JEJU NATIONAL UNIVERSITY' is overlaid on the score.

④재현부(273-373마디)

273마디부터 재현부인데 제1주제(악보9, 35-40마디)가 셋잇단음표의 반음계 윗타브 진행으로 변형되어 서정적인 선율로 등장한다. 또한 tempo도 제시부의 제1주제는 presto였지만 여기서는 Tempo rubato molto ritenuto되면서 'Lamentoso'의 슬픈 감정을 드러내어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위로하는 듯하다. (악보23)

<악보23> 제1주제의 변형(273-278)

285-289마디에서 선율은 도입부의 주제(악보5, 1-6마디)가 변형되어 짧게 나타나는데 겹점2분음표와 16분음표의 단선율로 나타나고 음정은 완전5도와 완전4도로 재현된다. (악보24)

<악보24> 도입부의 주제 변형(283-289마디)

290마디부터는 제2주제(악보10, 103-114마디)가 왼손에서 2분음표로 축소되어 나오는데 오른손이 고음역의 트레몰로로 아름다운 왼손의 선율을 뒷받침 해 준다. 이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으로서 pp를 통해 천국의 고요함과 영혼의 안식을, D장조의 사용을 통해 천국의 맑은 느낌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악보 25)

<악보25> 제2주제의 변형(290-299)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measures 290-299. The score is in G major (one sharp) and 4/4 time. It features a piano (pp) dynamic with a tremolando effect in the right hand. The tempo is marked 'Andante'. The key signature changes to D major (two sharps) at measure 295. The score includes markings for 'poco riten.*', 'marcato', and 'cresc.'. The bass line is marked with 'D:' and 'Reo.'.

300마디부터는 sf의 등장으로 변화의 시작을 알리고 이중 옥타브의 반음계 스케일은 곡을 절정으로 이끌어간다. 각 마디의 첫 코드는 A음을 반복함으로써 A음을 강조하고 조성을 드러내주고, 양손코드 모두 반음씩 상행하며 병진행 한다. 304-305마디에서는 오른손의 트레몰로 음형과 왼손의 하행하는 옥타브 스케일은 곡을 한층 더 절정으로 치닫게 하며 306 마디부터 나오게 되는 제2주제의 연결 구 역할을 한다. 306마디의 제2주제는 제시부의 제2주제 F#장조보다 장3도 하행하여 D장조로 등장한다. fff로 강렬한 인상을 주며 넓은 음역을 사용해 웅장하고 화려한 느낌을 준다. (악보26)

<악보26> 이중옥타브와 D장조로의 연결구(300-304마디)

a: 이중옥타브 b: 트레몰로 c: D장조로의 연결구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piano, measures 300-304. The score is in D major and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measures 300-303) is marked 'Più mosso' and 'sf'. It features a treble and bass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two sharps (F# and C#). The music consists of eighth-note triplets in both hands, with the right hand playing an octave higher than the left. Measure 303 ends with a fermata. The second system (measures 304-307) is marked 'stringendo' and 'ff'. It begins with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The music features a treble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and a bass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The right hand plays a treble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and the left hand plays a bass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The tempo is marked 'Allegro' and the dynamic is 'fff'.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triplets, slurs, and dynamic markings.

⑤코다(318-373마디)

오른손의 트레몰로 음형과 함께 왼손에서는 도입부의 주제(악보5, 1-6마디)가 점8분음표와 16분음표로 음의 길이가 축소되어 시작한다. 그리고 그 주제는 감5도 증4도로 하강하는 음정의 변화를 보인다. (악보27)

<악보27> 도입부의 주제 변형(318-324마디) a: 증4도 음형의 변형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measures 318-324. The top system (measures 318-321) is marked 'poco a poco più di moto' and '8'. The bottom system (measures 322-324) is marked 'ff' and '8'. The left hand part shows a descending eighth-note pattern with intervals of a diminished fifth (감5) and an augmented fourth (증4). The right hand part features a tremolo. The score includes dynamic markings like 'poco a poco più di moto' and 'ff', and articulation like 'Sed.'.

327마디부터는 왼손에서 제시부의 제1주제(악보5, 35-40마디)가 D장조로 재현되며 엑센트를 가지는 4분음표로 오른손 반음계적 진행 트레몰로 음형과 함께 나타난다. 두 마디 단위로는 하행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행하고 있다. (악보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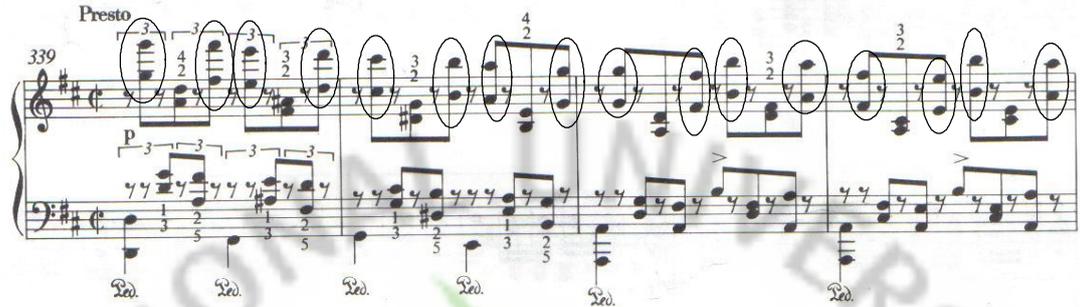
<악보28> 제1주제 변형(327-338마디)

Allegro vivace 반음계 진행 →

반음계의 상행 Chord →
D:

339-342마디에서는 제1주제(악보5, 35-40마디)가 D장조의 하행하는 셋잇단음표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악보29)

<악보29>셋잇단음표로 변형된 제1주제(339-342마디)



DM:

361-365마디에서는 종결부를 향해 양손의 각각 4화음 코드의 진행을 보인다. 이것은 장3화음으로 도약진행하며, 각 마디는 D장조, C장조, B \flat 장조, A \flat 장조, F \sharp 장조의 1도 화음으로 나타난다. (악보30)

<악보30>장3화음의 도약 진행(361-365마디)



DM: I CM: I B \flat M: I A \flat M: I F \sharp M: I

366-373마디는 도입부 주제(악보5, 1-6마디)와 같은 Andante이며 조성은 D장조이다. *fff*, *marcatissimo*로 왼손 저음역에서의 트레몰로 반주, 오른손의 엑센트를 동반한 강렬한 옥타브 코드로 관현악적인 효과를 주면서 끝을 맺는다. 또한 증4도의 음형(A-E \flat)인 도입부의 주제가 완전5도(C \sharp -F \sharp , A-D)로 해결되는데, 이것은 리스트가 도입부 주제를 통해 나타냈던 지옥의 공포를 완전한 천국의 승

리와 환희로 표현한 것이다. (악보31)

<악보31>완전5도를 통한 도입부의 증4도 주제 해결(366-373마디)



2)연주기법

「단테 소나타」는 테크닉(technique)적인 측면에서도 리스트 음악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 이 작품을 살펴보면 도입부의 주제와 제시부의 제1,2주제가 발전해 나가면서 폭넓은 다이내믹과 연속적인 이중 옥타브 스케일, 8도나 10도의 연속적인 스케일, 과감한 도약진행을 통하여 피아노의 관현악적인 색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테크닉을 능숙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주자의 끊임없는 훈련과 팔과 손목의 릴렉스(Relax)를 필요로 한다. 특히 이 곡의 주요음형이 되는 도약음과 코드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손목의 회전 테크닉(Rotation Technique)이 필요하다. 즉, 팔꿈치의 힘을 빼고 엄지손가락이 원을 그리며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손목이 원을 그려야 한다.

코드는 동시에 여러 음을 누르기 때문에 자칫 손과 팔의 근육에 긴장감이 들 수 있다. 이러한 긴장감을 풀기 위해서는 팔과 손목을 부드럽게 움직이고, 이중 옥타브의 스케일의 경우에는 리듬에 따라 움직임이 조절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동작은 삼가야 한다. 또한 곡의 전체적인 음향이 강해서 소리가 거칠어 질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 주의 하면서 부드러운 톤(Tone)과 터치(Touch)²⁰를 가져야한

다. 그러기 위해서 손가락은 속도와 무게를 조절하면서 건반의 밑바닥까지 누르고, 손목의 긴장을 없애 팔의 무게를 천천히 아래로 떨어뜨려야 한다.

페달링(Pedaling)에 있어서는 옥타브 스케일이나 코드 진행시 긴 페달이 많으므로 섬세한 반페달(Half Pedal)이나 스타카토 페달(Staccato Pedal)등이 요구된다.

먼저 도입부를 살펴보면 *f* 면서 악센트를 가지고 시작한다. 악센트에 중심을 두고 연주하면 소리의 울림이 단할 수 있으므로 1-6마디의 전체적인 프레이즈(Phrase)를 생각하여 깊고 무겁게 진행한다. 6마디의 코드는 보다 맑은 소리코드를 누름과 동시에 팔과 손목을 릴렉스(Relax) 하여 소리의 울림을 더하도록 한다. (악보32)

<악보32> 도입부의 주제(1-6마디)



35마디부터 제시부의 제1주제에서는 오른손의 반음계 옥타브 진행과 왼손의 Pedal tone "D"를 제외한 Bass Line의 움직임이 반음계 진행으로 나온다. 제1주제를 선명하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양손의 각각 5번 손가락에 중심을 두고 연주한다. 또 레가토(Legato)하여 하나의 프레이즈가 되도록 해야 한다.(악보33)

20) 톤(Tone): Tone이란, 하나의 개별적인 음이 소리내어야 할 여러 가지 음색을 말하고 이러한 음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손가락의 움직임을 터치(Touch)라 한다. 송정이, 「피아노 연주와 교수법」, 음악춘추사(1994), p.79.

<악보33> 제1주제(마디 35-40)

79마디에서는 오른손의 반음계 옥타브 진행은 손목의 회전 테크닉(Rotation Technique)을 이용하여, 왼손의 옥타브 스타카토는 방향감 있게 진행하여 팔과 손목의 긴장감을 풀어 연주한다. (악보34)

<악보34>(77-80마디) a: 오른손 옥타브 반음계 진행 b: 왼손 옥타브 스타카토

90마디부터는 오른손의 연타음이 나오는데 팔은 완전히 릴렉스한 상태에서 한 음씩 치지 말고 같은 코드끼리 무리지어서 터치해야 한다. (악보35)

<악보35>(90-92마디) a:○ 표시 - 오른손 2번 손가락



157마디부터는 ppp로 조심스러운 터치가 필요하다. 오른손은 2번 손가락에 중심을 두고 1번 손가락은 무게 없이 터치하며 5번 손가락으로는 울림이 있도록 튕겨준다. 왼손은 여리고 고르게 터치한다. (악보36)

<악보36>(157-158마디)



마디 189마디에서 오른손은 2번과 5번 손가락에 중심을 두고 손목의 회전 테크닉(Rotation Technique)을 사용하며 1번 손가락은 세우듯이 펴서 무게가 들지 않도록 터치한다. 왼손은 선율이 드러나도록 치되 방향감 있게 연주한다.(악보37)

<악보37>(189-192마디) a: 오른손의 회전 테크닉 사용 b: 선율이 드러나게 연주

235마디에서는 오른손의 연속적 옥타브 스케일이 레가토 될 수 있게 팔과 손목의 릴렉스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왼손의 주제가 강하게 나와야한다. (악보 38)

<악보38>(235-238마디) a: 연속적 옥타브 스케일 b: 왼손의 주제

300마디에서는 이중 옥타브 스케일의 왼손 bass 반음계 진행을 잘 들으면서 연주해야 한다. 그리고 첫 마디부터 너무 무겁지 않게, 마디가 지날수록 힘을 더할 수 있도록 힘을 조절하며 연주해야 한다. (악보39)

<악보39>(300-303마디)

Musical score for measures 300-303. The tempo is marked *Più mosso* and the dynamic is *sf*. The right hand plays eighth-note triplets, and the left hand plays an octaved bass line. Circles highlight the bass notes in the left hand.

마디324에서는 손을 건반에 붙여서 내성부의 반음계 진행을 들으면서 연주해야 한다. (악보40)

<악보40>Coda(324-326마디)

Musical score for measures 322-326. The tempo is marked *Allegro vivace* and the dynamic is *ff*. The right hand plays octaved chords, and the left hand plays bass notes. Circles highlight the bass notes in the left hand. The score includes the instruction *sempre marcatis.*

339마디부터는 Tempo가 빨라지며 양손의 도약진행으로 오른손의 윗 성부의 진행을 잘 나타내야 한다. (악보41)

<악보41>Coda(339-342마디)

361마디부터 끝까지는 상행하는 2분음표의 멜로디(Melody)선율을 선명하게 나타내며 뒤따라오는 4분음표의 코드 진행의 울림도 잘 들어 연주한다. (악보42)

<악보42>Coda(360-365마디)

366마디부터도 <악보42>와 같이 온음표의 울림을 잘 들으며 연주하고 하강하면서 더 깊은 소리를 내도록 무게를 더하여 연주한다. (악보43)

<악보43>(366-373마디)

Andante (Tempo I)

ff

8



Ⅲ. 결론

화려한 기교와 대담한 화성, 새로운 형식의 창조와 자유로움을 추구했던 리스트는 역사상 위대한 피아니스트 중 한명이자 뛰어난 작곡가였다. 또한 그는 관현악적 구성을 피아노로 재창조 하였고, 소리 그 자체를 위한 음악인 인상주의를 예견하였으며 표제 음악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리스트의 음악적 특징을 이해하고 좀 더 깊은 연주를 하기 위해 「단테를 읽고」에 대하여 분석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 연구한 「단테를 읽고」의 배경을 살펴보면 곡의 제목은 빅토르 위고의 시집 「내부의 소리」에 실린 32편의 시 중 27번째 시 「단테를 읽고 (Après une lecture du Dante)」의 제목에서 가져 온 것이다. 빅토르 위고의 시는 단테의 「신곡」의 지옥 부분만을 묘사하고 있지만 이 작품에서는 지옥부분뿐 아니라 베아트리체와의 사랑과 천국부분도 묘사하고 있으므로 단테의 「신곡」 전체를 묘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작품에 나타난 표제적 요소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삼전음(Tritone) 중 증4도와 감5도(예: 악보5, 악보6 참조)를 통하여 지옥의 분위기를 둘째, 반음계와 트레몰로(예: 악보2, 악보3 참조)를 통하여 지옥의 공포와 더불어 천국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셋째, 관현악적 효과의 음량(예: 악보4 참조)을 통해서는 극단적인 지옥의 고통이나 화려하고 웅장한 천국의 승리 등을 나타낸 것이다.

형식을 살펴보면 소나타 형식 안에 리스트의 환상을 즉흥적이고 자유롭게 펼친 환타지적 요소가 들어있고, 거대한 단악장의 구성과 주제의 변형을 통한 반복 사용 등을 한 소나타 형식과 환타지적 요소가 결합된 형식이라 볼 수 있다.

연주기법적인 측면에서는 작품 안에 나타난 폭넓은 다이내믹과 연속적인 이중 옥타브 스케일, 8도나 10도의 연속적인 스케일, 과감한 도약진행을 능숙하게 연주하기 위해 팔과 손목의 릴렉스와 회전 테크닉이 요구된다.

악곡의 구조는 도입부-제시부-발전부-재현부-코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3개의 주제가 나타난다. 도입부의 증4도 주제(악보5 참조), 반음계 진행을 하는 제시부의 제1주제(악보9 참조), 서정적인 제2주제(악보10 참조)가 그것인데, 이 3개의 주제

들은 작품 안에서 변형되어 전체에 나타나고 있다.

이제까지 리스트의 「단테를 읽고」 작품에 대하여 분석 연구함으로써 악곡구조와 리스트 음악의 전반적인 특징, 또 연주기법을 이해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리스트가 표제음악의 발전과 관현악적 색채를 피아노로 표현하고 인상주의 음악의 예견 등 그가 음악사에 미친 여러 영향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을 통하여 리스트의 「단테를 읽고」를 연주하고자 하는 이이게 보다 깊은 연주를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1) 한국문헌

- 김경임, 「피아노 소나타」, 경북대학교 출판부, 1995.
백병동, 「개정 대학음악이론」, 현대음악출판사, 2006.
송정이, 「피아노 연주와 교수법」, 음악춘추사, 1994.
한상우, 「음악가의 생애와 작품」, 청한, 1998.
한현곤, 「풀어쓴 단테의 신곡」,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3.

2) 구미문헌

- Alighieri, Dante, 최현 역, 「신곡神曲」, 변우사, 1998.
Humphrey, Searle, 김경임 역, 「리스트의 음악세계」,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2.
Gillespie, J. , 김경임 역, 「피아노 음악」,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5.
R. M. Longyear, 김혜선 역, 「19세기 낭만주의 음악」, 도서출판 다리, 2001.
Ulrich, Michels, 홍정수외 역, 「음악은이」, 음악춘추사, 2000.
Walter ,Robetr, *Après une lecture du Dante of Liszt*, piano Quarterly, 1975.

3) 논문

- 권성혜, “절대음악과 표제음악에 대한 19세기의 논쟁”,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김채희, “19세기 피아노 작품에서의 환타지와 소나타 형식간의 상관관계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남혜연, “F. Liszt의 「Après une lecture du Dante」의 분석과 연주기법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박원영,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작품 Liszt sonata b minor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범지혜, “Franz Liszt의 「단테를 읽고」 분석: 낭만 판타지에 내재된 고전주의적 기법”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서현진, “「단테소나타」의 분석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오은실, “리스트의 「순례의 연보 제 1,2년」과 「2개의 전설」에 나타난 타예술의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최정민, “리스트의 ‘단테를 읽고’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4) 사전류

- 일신서적출판사, “家室”, 「음악용어사전」, 2002.
- 세광음악출판사, 「음악대사전」, 1972.
- 음악춘추사, 「리스트 피아노곡집/순례연보Ⅱ」, 2001.

ABSTRACT

The analysis on the 「Après une lecture du Dante」

by F .Liszt

Lee, Seong A

Major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Soon Bang

Liszt is one of the greatest pianists in history and a talented composer pursued splendid techniques, daring harmonies, creation of new forms and freedom. Moreover, he recreated orchestral structure by piano and foresaw impressionism, music for sound itself, and developed program music. To understand the musical characters of Liszt's and perform well, 「Après une lecture du Dante」, which is played at the writer's graduation concert, is chosen and analyzed among Liszt's many piano works. The way of studying it was to use literatures in a library, on-line library, and so on. To look at the background of 「Après une lecture du Dante」, the title of the tune derived from Victor Hugo's own work entitled the same, which is listed in 「Les Voix intérieures」. Hugo's work described only hell part in Dante's 「The Divine Comedy」, but 「Après une lecture du Dante」 described love with Beatrice as well as paradise part, so it is possible to say that it wholly describes Dante's work. The characters of Liszt's music as a surficial element indicated in this work are as follows. First, it shows the atmosphere of hell through a augmented fourth and a diminished fifth among tritones.

Second, it represents the beauties of paradise with a fear of hell through a chromatic scale and a tremolo. Third, it expresses extreme agonies in hell or splendid and grand victory in paradise through the volume of orchestral effect. To look at forms, it contains a fantasy element, which impromptu and freely expressed Liszt's reverie in a sonata form. Furthermore, the work can be said to be a combinational form of fantasy elements and sonata forms, which are composed of one grand movement and repeatedly used through transformation of a topic. In style, revolutionary techniques and relaxing one's arms and wrists are required to play far-reaching dynamics, consecutive dual octave scale and consecutive scales of octave and tenth, and daring disjunct motion on the piano with deftness. Lastly, the structure of the musical piece is composed of introduction-exposition-development-recapitulation-coda and three themes are expressed. They are a theme of augmented fourth in introduction, first subject to proceeding chromatic scale in exposition, and second theme lyrical. These are transformed and showed wholly in the tune.